

부산국제청소년국가대표축구대회 축하 메시지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국제청소년국가대표축구대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을 방문하신 선수단 여러분을 마음으로부터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대회 관계자 여러분과 부산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 월드컵이 열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함성과 감격이 아직도 우리 모두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특히 부산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역사적인 첫승을 기록했던 승리의 도시입니다. 저도 그날 부산역 광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목이 터져라 응원했고, 감격적인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월드컵 4강 진출의 신화까지 이루어 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역동성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국민들의 역량과 열정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월드컵의 대성공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못해낼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쾌거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감을 살려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하겠습니다. 월드컵 성공의 교훈을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분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가 온 국민의 힘과 뜻을 다시 한번 모으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멋진 경기와 활기찬 응원을 통해서 선수들과 부산시민,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시는 국민 모두가 다함께 승리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국제청소년국가대표축구대회의 개막을 다시금 축하드리면서 선수들의 선전과 부산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